

<번역 논문>

번역사회학과 번역자의 핵심적 역할

스티브 버네킹(Steve Berneking)*

김형동 번역**

1. 서론과 목적

“재창조, 건축양식의 탄력성”은 2015년 여름 동안 헬싱키, 에스플라네이드 공원에 전시되었던 두 개의 목재 구조물로 이루어진 설치 작품이다. 핀란드의 건축가 안시 라실라(Anssi Lassila)에 의해 설계된 (구조물) “재창조”는 “무한정 공간”(universal space)¹⁾이라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고, 두 문화적 맥락(context)에 의해 형성된 공간에 대한 두 물리학적 해석을 제공한다.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은, “무한정 공간”이라는 하나의 건축 개념이 새로운 문화와 사회적 환경에 놓였을 때 어떻게 두 개의 다른 형태로 번역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라실라의 “재창조”의 두 부분은 핀란드와 중국에서 현지인 장인들로 구성된 두 팀에 의해 건설되었다. “무한정 공간”을 각각 해석한 이 두 오두막은 건축 재료, 형태, 건축 기술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핀란드 오두막은 가로 형태의 가문비 통나무로 건축되었다. 중국 오두막은 대나무를 구부려서 금속 띠를 둘러서 만든 끝이 뾰족한 아치 형태이다.

라실라의 구조물은 번역으로서의 건축 양식을 탐구한다. 오두막을 건축하는 과정은 문화적 구조, 사회적 맥락, 현지/지역 유산에 의해 결정된 건축 설계자와 건축 시공업자 간의 대화로 구체화되었다. 건축 재료와 건축 기

* Steve Berneking, “A Sociology of Translation and the Central Role of the Translator”, *The Bible Translator Practical Paper* 67:3 (2016), 265-281. Bible Translation Consultant, The Seed Company. steven_berneking@tsco.org.

** 부산장신대 교수, 신약학. hd9191@hanmail.net.

1) (역자주) 건물의 벽과 기둥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용도에 따라 칸막이를 하여 쓸 수 있도록 한 공간.

술은 분명하게도 지역적 맥락에 의해 결정되어, “무한정 공간”을 해석하고 있는 두 개의 매우 다른 산출물, 즉 두 개의 매우 다른 오두막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림 1> 안시 라실라의 두 오두막, “재창조 - 건축양식의 탄력성”(사진, 필자)

<그림 1>은 이 논문의 핵심적 명제 중 하나를 강조한다: 번역은 그것이 출판물을 가리키든, 혹은 과정을 가리키든 본질적으로 사회적 활동이다. 그것은 문화적, 사회적 맥락의 복잡한 네트워크 안에 놓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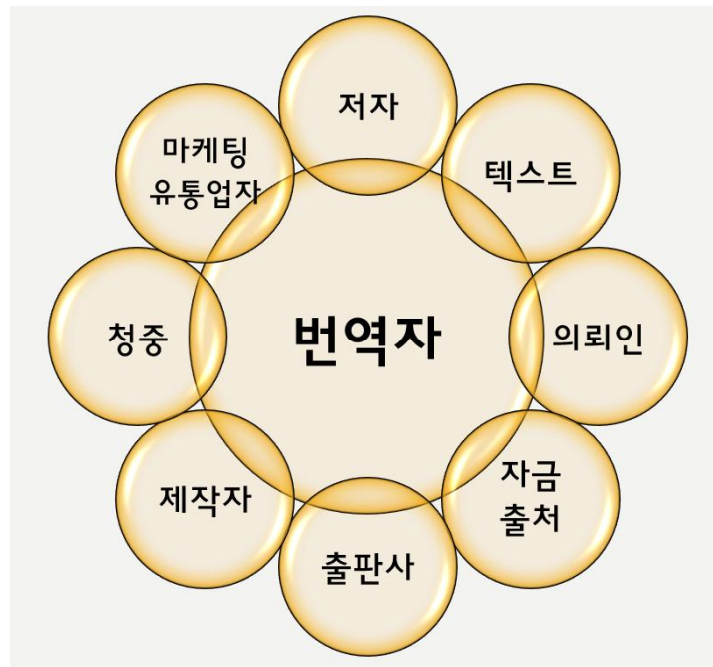
출판물로서의 번역은 다양한 사회체계에 속해 있는 개인들에 의해 창조된다. 그 개인들은 그들의 번역 안에서, 번역을 통하여 계속해서 가치와 의미를 창조한다. 과정으로서의 번역은 번역의 전략, 선택, 과정, 생산(제작), 유통을 대체적으로 결정하는 그러한 다양한 사회체계 안에서 수행된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관련성을 인식하는 것은 번역을, 번역학자 테오 허만스(Theo Hermans)의 말로 하자면, “사회적으로 규제되는 행위”²⁾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출판물이자 과정인 번역은 텍스트와 다양한 사회적 기관들이 — 저자, 텍스트, 클라이언트, 번역자, 자금 출처, 생산자, 출판업자, 마케팅업자, 유통업자, 청중이 — 만나는 복합적 영역 안에 얽여

2) Theo Hermans, “Translation as Institution”, M. Snell-Hornby, Z. Jettmarová, and K. Kaindl, eds., *Translation a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elected Papers from the EST Congress Prague 1995* (Amsterdam: Benjamins, 1996), 10.

있다. 더 나아가, 이들 행위자 각각은 활용 가능한 인적, 재정적 자원을 사용하여 확립된 규범과 사회적 기대를 따르도록,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결정되고 규정된다. “사회적으로 규제를 받는 행위”로서 번역은 다양하고 때로는 모순되는 결정 요소들의 복합적 네트워크 안에 매여 있다.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행위의 이러한 상호작용의 핵심에는 번역자가 있다. 이들은 또한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 안의 모든 요소들에 영향을 받는 동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에 의해 구축됨과 동시에 사회 안에 구축해 나가는 사회적 행위자이다(<그림 2>). 이 관점은 대개 사회구성주의 혹은 사회구성주의자 이론으로 불린다.



<그림 2> 번역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그러한 관찰과 전제들이 최근 번역학 내에서 탐구되었고, 이러한 탐구는 특정 하위 분야, 즉 번역의 사회학(번역사회학 혹은 사회문화적 번역)이 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다. 번역사회학이라는 이 하위 분야는 이론과 방법론적 수준에서 번역학과 사회학의 교차점을 강조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이 연구 논문에서 필자는 먼저 번역사회학의 출현에 관한 최근의 글들을 검토할 것이고, 다음으로는 이것들을 실험적 방법으로 성서 번역이라는 하위 분야에 적용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표는 성서 번역자의 사회적 역할, 그리고 성서 번역자가 일하고 성서 번역이 행해지는 다양한 사회적 연결망을 고려할 때, 성서 번역 실무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혹은 재학습)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그러한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의할 점을 알려두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필자는 번역학으로부터 배운 것(학습 지식)을 성서 번역으로 직접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어쩌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두 전문 분야는 확실히 같은 세계에 있지만, 이 둘은 이론적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현저하게 구분된다. 필자는 여기서 두 개의 방식을 언급하겠다. 더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필자는 출판물과 과정으로서 번역을 이해하려는 독특성에 논점을 국한하고자 한다.

첫째, 번역(출판)물 그 자체의 성격이 현저하게 다르다. 번역학 내에서 번역물은 시(詩)에서부터 법적 문서, 그리고 광고에 이르기까지 문학이 취하는 최대한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번역되어야 할 텍스트는 종종 한 명의 저자에 의해 만들어진다. 대조적으로 성서 번역은 성스러운 종교 문학만을 다룬다. 성서 번역은 종교 텍스트 번역 안의 하나의 전문 영역으로서, 특정한 종교 공동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한 종교 공동체들로부터 나온 종교 문학의 번역을 다룬다. 그러므로 성경은 한 저자의 산물이 아니라, 오히려 다수의 저자, 편집자, 편저자, 그리고 사용자 공동체의 산물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각각 종교 문학으로서 성경과 맞물려 있는 다양한 정황, 신학적 관점들, 이념적 세계관을 가진다.

번역학 내에서 성서 번역을 독특한 것으로 만드는 두 번째 개념은 번역의 과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성서가 어떤 한 개인의 산물이 아닌 것과 같이, 성서 번역 또한 어떤 한 번역자의 노력의 결과인 경우는 거의 없었다. 성서 번역에는 — 번역의 역사 속에서 많이 행해졌던 것처럼 — 보통은 많은 번역자들, 더 낮게는 세 명에서 다섯 명으로 구성된 번역팀이 관여한다. 이들은 다양한 종교 공동체에 속한 다른 이들, 예를 들어, 언어 전문가와 성서학 전문가, 번역 검토자, 편집자, 혹은 교정자의 지원과 도움을 받는다. 일차(번역)팀 자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큰 규모의 팀은 둘 다 그들 자신의 신학적이고 사회학적 틀, 종교적 전통, 세계관을 가진 개인들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 논문의 서두에서 필자는 이러한 특징적인 점들에 관한 고지사항 없이는 번역학으로부터의 용어와 방법론을 성서 번역으로 이입할 수 없는 점을 알린다. 그래서 번역사회학이 일반적으로 한 명의 번역자를 강조하는 데 반해, 성서 번역에서 우리는 전형적으로 번역자들, 더 정확하게는 번역팀을 가리킨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논의와 글쓰기의 편의를 위해, 집합적 의미에서 단수 “번역자”를 사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번역에 있어서 창조적 행위자로서의 번역자”와 “번역자의 사회적 역할”를 말하는

경우에서 그렇다. 마찬가지로, “청중” 혹은 “자금 출처” 혹은 “의뢰인” 같은 용어들도 성서 번역의 실제 세계에서 복수일 가능성이 훨씬 크지만, 단수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2. 번역학에서의 “문화적 전환”: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번역

인문학에서의 대부분의 학제 간 연구 영역에서와 같이 번역학도 기존의 전제들에 물음을 던지고 연구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다양한 “전환점들”을 가진다. 최근 번역학에서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이라고 이름 붙여진 연구는 역사적, 문화적, 인류학적 관점, 의미 체계와 정황적 환경(외부 상황)과 같은 점들을 확인하고, 진행하고, 논의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³⁾ 이러한 요소들은 이제는 아주 흔한 것이다. 심지어 우리의 성서 번역이라는 하부 영역에서조차 그러하다.⁴⁾ 이 점은 번역이 그러한 복합적 정황들이 배제된 진공 상태 안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음을 상기시킨다. “문화적 전환”으로 인해 우리는 번역이, 심지어 성서 번역마저, 너무나 자주 무시하였고 그것이 우리의 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문화적, 사회적 요소들에 의해 형성된다는 개념을 고려하게 되었다. 번역은 다양한 문화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역동적 “그물(망)” 속에 존재한다. 사회학의 기초를 세운 이론가 중 한 명인 막스 베버(Max Weber)를 따르는 클리포드 거츠(Clifford Gertz)는 인간은 “(그들 자신이 짜 만드는) 의미의 망 안에 매달려 있다”라는 견해를 제시한다.⁵⁾

1980년대의 이러한 “문화적 전환”의 관점에서 번역은 문화와 사회의 정적인 견해를 반영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와 사회에 맞서고 부딪칠 때 일어나는 역동적인 변화(transformation)를 강조하는 그 무엇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⁶⁾ 문화와 사회가 역동적이듯이 번역 역시 그러하다. “문화적 전환”으로부터의 깨달음의 관점에서 볼 때, 번역학은 이러한 역동

3) 예, Mary Snell-Hornby, *The Turns of Translation Studies: New Paradigms or Shifting Viewpoints* (Amsterdam: Benjamins, 2006); Susan Bassnett and André Lefevere, eds., *Translation, History, and Culture* (London: Pinter, 1990) 참조.

4) 예, Timothy Wilt, ed., *Bible Translation: Frames of Reference* (Manchester: St. Jerome, 2003) 참조.

5) Clifford Gertz,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Selected Essays* (Hammersmith: Fontana, 1993), 5.

6) Michaela Wolf, “Introduction: The Emergence of a Sociology of Translation”, Michaela Wolf and Alexandra Fukari, eds., *Constructing a Sociology of Translation* (Amsterdam: Benjamins, 2007), 5-6.

적 “접촉 영역”뿐만 아니라, 번역 작업에 의해 구성되고, 또한 번역 작업을 통해 현실을 구성하는 행위자인 번역자들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3. 번역사회학으로 전환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남아 있다: 이 “문화적 전환”으로 인하여 1990년대 이래 번역학은 “사회적 전환”이라 불리는 그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확실히 번역에 있어서 문화적 혹은 사회적 접근이 많아졌다. “사회적”이라는 것이 최근 수십 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주목 받고 논의되었다. 필자는 단지 본질상 사회적이라고 간주되는 몇 가지 접근만 간략하게 강조하고자 한다.

이타마 이븐-조하르(Itamar Even-Zohar)에 의해 제시되었듯이 ‘다체계 이론’은 (사회체계 자체로서의) 번역 문학을 대상 문화의 사회적, 문학적 정황 내에 둔다. 그가 의미하는 문학은 역동적이고 기능적이다.⁷⁾

기드온 투리(Gideon Toury)는 번역을 규범에 의해 통제되는 행위로 여긴다. 여기서 번역자들은 번역 작업에 관여된 사람들과 조직 단체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된 내재화된 사회적 규범에 의해서 지침을 받는다(guided). 번역과 규범에 관해 투리가 1990년에 발표한 글은 번역자의 역할과 번역자가 살고 있는 사회 정황적 맥락을 분명하게 강조한다.

테오 허만스는 규범에 대한 투리의 고찰에 주목하여 그 규범들이 번역 과정을 형성해 나가는 범위를 강조한다. 그에게 있어서 번역이란 “의사소통적,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교류”로 간주된다.⁸⁾ 다시금, 관련 행위자들이, 특별히 권력과 이념에 연관된 그들의 사회적 기능과 더불어 초점의 대상이 된다.

텍스트 자체로부터 이러한 텍스트들의 중재로 관심을 옮긴, 번역에 대한 다른 기능적 접근들도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크리스티안 노드(Christiane Nord)는 **스코포스 이론**⁹⁾을 진전시킴에 있어서 번역을 “문화 간 의사소통 행위”로 보는 견해에서 시작한다. 문화 간 의사소통 행위 안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권력이 대

7) Itamar Even-Zohar, “Polysystem Theory”, *Poetics Today* 11 (1990), 9-26.

8) Theo Hermans, “Norms and Determination of Translation: A Theoretical Framework”, Roman Álvarez and C.-Á. Vidal, eds., *Translation, Power, Subvers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1996), 26.

9) (역자주) 그리스어로 목적을 뜻하는 말로서 단순히 텍스트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의 관점, 이른바 “목적이 있는 커뮤니케이션 행위”로서 번역을 논하는 이론이다.

상 문화 내에서의 수용을 위한 **스코포스**를 형성하고 정의하는 데 작용한다.¹⁰⁾

필자는 또한 마리아 튀모즈코(Maria Tymoczko)와 에드윈 겐즐러(Edwin Gentzler)가 “권력”에 주목한 관심을 언급하겠다. 그들은 권력이야말로 번역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견해의 원동력 가운데 하나이고, 따라서 소위 “번역사회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떠한 하부 영역에 있어서도 그 핵심 문제라고 주장한다.¹¹⁾ 그들에게 있어서 번역은 “선택, 집합, 구조화, 제작의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행위”이다.¹²⁾ 그렇기에 번역에 있어서 다양한 사회적 측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게다가 그들의 주장은 어떠한 “번역사회학”도 번역자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번역자의 과제 내에 지식을 창조하는, 그리고 문화와 사회 형성에 공헌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번역자의 과제가 지식을 창조하고 사회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데 관여한다는 튀모즈코와 겐즐러의 마지막 요점은, 번역학을 “문화적” 견해에서 “사회적” 견해로 옮긴 “분기점”(break point)이라 할 수 있다. 최근의 번역학자들은 참으로 실행 가능한 “번역사회학”을 유지하게 위해서는 텍스트로부터 번역 과정을 형성하는 사회체계의 복잡한 네트워크 안에서 일하는 번역자에게로 초점이 옮겨져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다니엘 시미오니(Daniel Simeoni)는 2007년의 연구 논문 “번역과 사회: 개념 관계의 출현”에서 비록 번역에 대한 이론과 접근이 거의 언제나 본질상 “사회적”이었지만, 초점은 주로 텍스트, 과정에 있어서의 텍스트의 문화적, 사회역사적 정황과 출판물로서의 텍스트에 머물렀다는 점에 주목한다. 비록 1980년대 전체 10년이 “문화적 전환”을 구현한 것으로 표시될 수 있었지만, “사회학적 눈”은, 사회적이지만 사회학적이 아니었기에, 부차적인 것으로 머물러 있었다고 그는 기록했다.¹³⁾ 유사한 논증으로 안토니 뎀(Anthony Pym)은 사회체계 안에 내장된 대상으로의 텍스트로부터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중재자 혹은 번역자에게로 관심을 약간 돌리는 것은, 번역학에 있어 관찰한 것을 끄집

10) Christiane Nord, *Text Analysis in Translation: Theory, Methodology, and Didactic Application of a Model for Translation-Oriented Text Analysis* (Amsterdam: Rodopi, 1991), 9.

11) Maria Tymoczko and Edwin Gentzler, eds., *Translation and Power*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2002), xvi.

12) Ibid., xxi.

13) Daniel Simeoni, “Translation and Society: The Emergence of a Conceptual Relationship”, P. St.-Pierre and P. C. Kar, eds., *In Translation. Reflections, Refractions, Transformations* (Amsterdam: Benjamins, 2007), 15.

어낼 수 있는 “연장통”(tool box)과도 같은 사회문화적 접근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진술한다.¹⁴⁾ 끝으로, 필자는 앤드류 체스터만(Andrew Chesterman)을 언급하고자 한다. 그는 번역학의 새로운 하부 영역은 발전 — 번역의 사회학이 아니라 그가 “번역자 연구”(translator studies)라고 부르는 것 — 을 간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¹⁵⁾

최근 몇 년간, 이러한 “사회학적 눈”이 확실히 넓게 열려졌다. 가장 주목할 만하게는 미카엘라 볼프(Michaela Wolf)가, 그녀의 표현을 빌리자면, “번역사회학”의 근본(fundamentals)을 발전시켰는데, 이 근본은 세 개의 다른 강조점 — 번역 과정의 사회학, 출판물의 사회학, 행위자의 사회학 — 을 반드시 다루어야만 한다.¹⁶⁾

번역 과정의 사회학.

여기서의 초점은 가장 초기 단계들에서부터 배송까지의 다양한 단계, 그러한 과정과 절차에서 번역의 생산을 형성하거나 혹은 규제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조심스럽게 고려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소들은, 예를 들면, 번역 관행과 업무 절차, 품질관리 절차, 가편집, 수정 과정, 고객과 자금 지원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들을 포함한다. 여기에서의 핵심 관심은 번역 규범, 절차에 있어서 길라잡이가 되는 행동을 확립하는 것이다.

번역 출판물의 사회학.

대조적으로 여기서의 초점은 수많은 사회적 환경(settings) 안에서 유포되는 문화적 출판물로서의 번역의 타당성과 수용성이다. 출판물로서의 번역은 사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의해 수용되고 사용되는 정도(까지)의 사회적 정체성, 이미지, 사회적 역할, 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번역출판물의 생존력에 관하여 로렌스 베누티(Lawrence Venuti)는 “번역의 생존력은 그것이 생산되고 읽히는 문화적, 사회적 정세(conditions)와의 관계에 의해 확립된다”고 논평한다.¹⁷⁾

14) Anthony Pym, “On the Social and the Cultural in Translation Studies”, Anthony Pym, Miriam Shlesinger, and Zuzana Jettmarová, eds., *Sociocultural Aspects of Translating* (Amsterdam: Benjamins, 2006), 1-25.

15) Andrew Chesterman,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or Studies”, *Hermes—Journal of Language and Communication Studies* 42 (2009), 16-18.

16) Michaela Wolf, “Introduction: The Emergence of a Sociology of Translation”, 13-18.

17) Lawrence Venuti,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1995), 18.

번역 행위자의 사회학.

셋째, 아마도 이 논문의 구체적 목적에 가장 잘 해당되는 것은 번역에 관련된 일차적 행위자, 곧 번역자에게 초점을 둔 볼프의 의도이다. 여기서 번역자는 개인과 구체적 사회적 네트워크의 집단 구성원들 양자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번역자는 분석과 연구의 핵심 대상이 되기에 번역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문화적, 사회적 제약들을 인식해야 한다. 더불어 번역자는 어떤 협상된 사회적 맥락 내에서 텍스트의 생산자이자 동시에 의미 창출자라는 이해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목표는, 특별히 볼프에게 있어서, 번역자의 사회-구성주의적 성격과 번역 자체가 사회에 미치는 지속적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다.

4. 창조적,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번역자

번역사회학으로의 “사회적 전환”에 관한 몇몇 논의에 대한 간략한 개관은, 최근에 번역학이 번역자, 즉 사회적으로 구축되고 또 구축하는 강력하고 창조적인 행위자로서의 번역자에게 온전한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제시한다. 번역은 더 이상 번역자 안(예, 소위 인식의 “블랙박스”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즉 번역자가 살아가고 일하는, 작업을 규제하는 (혹은 제약하는) 복합적이고 경쟁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번역자는 동시에 두 차원에서 살아가고 일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 차원은 문화적, 구조적 차원으로 권력, 패권, 국가적, 세계적 관심사, 종교, 혹은 경제와 같은 요소들로 구성된다. 둘째 차원은 이러한 구조들의 지속적인 내면화에 관심한다. 이 내면화는 사회적 규범, 가치, 이념으로서의 실천과 행동을 결정한다.¹⁸⁾ 볼프는 주장하기를, 문화적 구조와 내면화된 사회적 실천으로의 번역의 이 두 차원은 이론적으로나 혹은 방법론적으로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사회는 문화 없이 적절하게 설명될 수 없고, 사회 없는 문화 역시 그러하다.”¹⁹⁾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번역에 대한 그러한 숙고는 번역사회학의 핵심을 형성한다.

18) Michaela Wolf, “Introduction: The Emergence of a Sociology of Translation”, 4.

19) Ibid., 6.

5. 번역사회학에서 번역자를 사회적 행위자로 자리매김하기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아비투스(habitus)**라는 용어를 원용하였고, 이 용어는 번역자에 초점을 맞추는 최근 번역이론의 주축이 되었다. 부르디외는 **아비투스**를 “지속성이 있고, 교환 가능한 정의 체계”라고 규정하였다. 아비투스는 먼저 어린 아이(“일차 **아비투스**”)에 의해 습득되고, 이어서 아이가 성장하고 사회화되면서 이차, 삼차 **아비투스**로 변환된다.²⁰⁾ **아비투스**는 인생 경험을 통해 소유하게 되는 문화적, 사회적 습관, 기술, 가치의 구현이다. 부르디외는 종종 스포츠 은유를 사용하였다. 그래서 **아비투스**를 “게임에 대한 느낌”으로 정의하였다. 자유로운 선택과 확정된 구조의 상호작용을 통해 거듭해서 창조되고 또 재창조된 우리의 **아비투스**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사회적 맥락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추론하고, 선호하고, 믿어야 하는지를 알도록 준비시킨다.

핀란드의 번역학자 한나 리스쿠(Hanna Risku)는 번역자의 “위치구속성”(situatedness)에 관해 쓰고 있다. 이 접근은 물리적, 사회적 맥락의 역할을 강조한다. 번역자가 혼자서만이 아니라 다른 행위자들과 기관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작업하는 방식이 그녀의 관심사이다. **아비투스**처럼, 번역자의 위치구속성은 번역 과정에 의해 결정되고, 번역 과정을 결정한다.²¹⁾

에릭 프룬치(Erich Prunč)는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을 기반으로 번역자들이 다른 관련자들과 함께, 그리고 반대하며 작업하는 복합적인 사회적, 문화적 공간 안으로 번역자를 끌어들이 필요를 논한다.²²⁾ 볼프의 책, *Constructing a Sociology of Translation* (번역사회학 구축하기)에 기고한 글에서 프룬치는 번역자에 의해 취해진 사회적 역할, 곧 번역자가 어떻게 번역 작업을 실제로 수행하는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사제, 왕자, 천민: 번역이라는 전문 영역 구축하기”라는 호기심 어린 제목의 그의 연구 논문에서 프룬치는 사회의 문화적 구조에 따라 번역자가 취하는 다양한 역할을 검토한다. 그의 연구 논문은, 번역자가 처해서 일해야만 하는 문화적, 사회적 제약은 때로는 의사소통과 번역을 통제하는 심한 요구와 더불어 번역자로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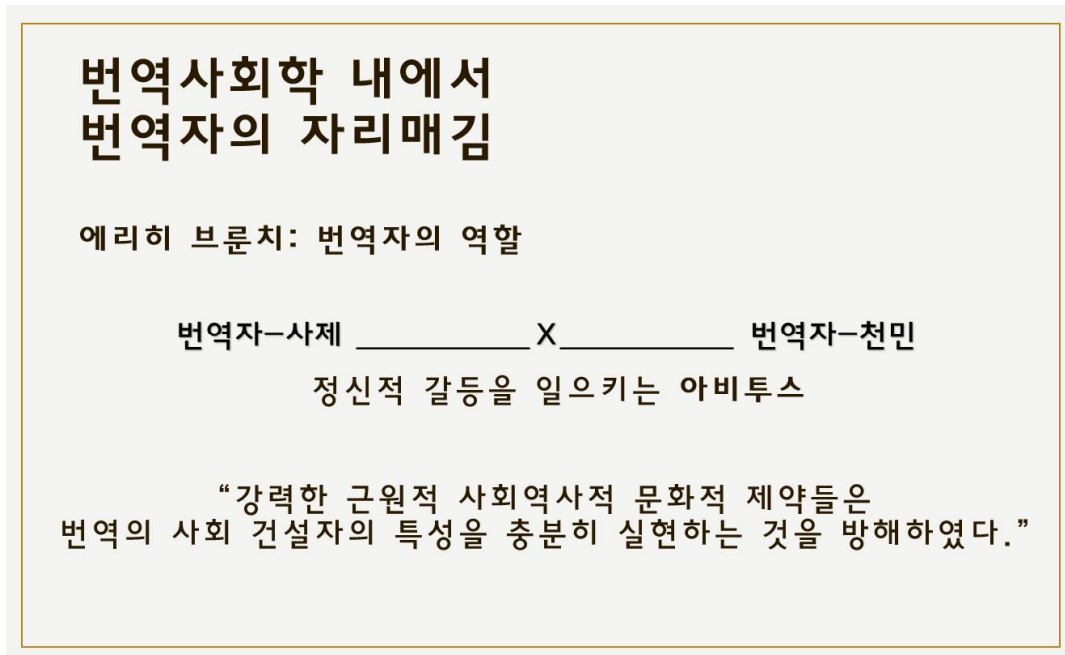
20) 예, Pierre Bourdieu, *The Logic of Practice* (Palo Alto: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2) 참조.

21) Hanna Risku, “Situatedness in Translation Studies”, *Cognitive Systems Research* 3 (2002), 532-533.

22) Erich Prunč, “Priests, Princes and Pariahs: Constructing the Professional Field of Translation”, Michaela Wolf and Alexandra Fukari, eds., *Constructing a Sociology of Translation* (Amsterdam: Benjamins, 2007), 39-56.

여금 작업 스타일과 실행을 조정하게끔 강제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프룬치는 번역의 역사를 통해 계속 보였듯이, 번역자의 **아비투스**의 어찌면 너무나도 간략화된 연속체인 그 무엇을 제시하였다. 이 연속체의 한쪽 끝에는 그가 ‘번역자-사제’라 부르는 것이 있고, 다른 끝에는 ‘번역자-천민’이라 부르는 것이 있다(<그림 3>).



<그림 3> 프룬치의 번역자의 역할의 연속체

번역자-사제는 자칭 “세상의 수호자”이다. 프룬치의 정의에 의하면, 번역자-사제는 문화를 선택하고, 변화시키고, 영향을 미치는 권력을 가진 문지기이자 문화의 건설자이다.²³⁾ 번역자-사제의 기원은 아카드어 텍스트를 지킨 메소포타미아 사제들에게 있다. 이 역할은 이후 성서 번역자 성 제롬과 루터, 또한 그들의 일이 국가적 문학 고전의 일부가 된 문학 번역자들에 의해 채택되었다. 오늘날, 번역자-사제는 유럽연합과 같은 국제적 기구들의 해석자와 번역자들이라고 프룬치는 말한다.

이 연속체의 다른 끝에 있는 번역자-천민은 번역자의 극단적 소외(marginalization)와, 스스로 강요한 혹은 다른 이들로부터 강요된 번역자의 보이지 않는 존재성(invisibility)을 나타낸다. 다시금, 프룬치의 말을 빌리자면, 번역자-천민은 원저자를 주인으로, 그리고 소비자를 왕으로 여긴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번역자-천민은 잠재적으로 모순된 안전 혹은 목표를 인식하지 않은 채 그저 출판물을 배달하기 위해 일한다.²⁴⁾ 번역자-천민은

23) Ibid., 48.

출판물을 가능한 한 빠르게 배송하는 것 너머에 있는 어떠한 문화적 구조나 혹은 사회적 기대도 전혀 알지 못한다. 19세기와 20세기에서의 성서 번역의 선교사 모델은 이러한 번역자-천민 견해를 반영하는 번역을 너무나 자주 생산해 내었다.

프룬치는 번역자의 작업에 있어서 권력의 사회적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 번역사를 간략하게 개관한다. 그는 로마의 저술가 키케로(Cicero)와 호라티우스(Horace)가 고대 그리스 텍스트의 생각과 구조를 그들의 라틴어 번역에 용화시킬 때 가졌던 상대적인 자유를 주목함으로써 시작한다. 그들은 이 텍스트들을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조심스럽게 엄선한 교정을 활용하여 대상 문화와 사고 체계에 맞게 이 텍스트들을 각색하였다. 그들은 어깨를 겨룰 상대가 없는 권력을 행사하여 이러한 번역/각색을 수행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프룬치는 주장한다.

이 각본은 로마 제국의 다신론 위에 단신론을 지지한 플라톤적 기독교 개념을 통합함으로써 현저하게 변하였다. 이 체계 내에서 일하는 번역자가 번역 작업에서 이 단신론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는가? 프룬치에 따르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말씀이 절대적 진리와 같다고 상정하는 것이었다. 요한복음 1:1을 따라 교회는 로고스-중심적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것의 정확함과 절대적 진리는 하나님에 의해 보장되었다. 따라서 축어적 번역이 번역에서 허락된 유일한 접근이었다. 그러한 체계 안에서 번역자에게는 창의적 자유가, 비록 있다고 해도, 거의 없었다. 번역자의 작업은 교회에 의해 인가된 검열관들과 주석자들에 의해 “점검”되었다. 그러므로 번역자의 **아비투스**는 축자적 번역에 맹목적으로 따르도록 예정된 번역자-하인이 되었다.

프룬치는 계몽주의를 통해서 이러한 논의들(issues)을 계속 추적한다. 그는 말하기를, 계몽주의는 “신-중심적 모델의 붕괴뿐만 아니라 문자적 번역 접근만이 적절하다는 주장의 폐기”를 가져왔다.²⁴⁾ 묘하게도 번역자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에 관해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심지어 우리의 포스트 모던 세계에서 말씀과 절대적 진리의 항등식이 서서히 쇠퇴함으로 번역자가 여전히 창조적 힘을 펼칠 여지가 여전히 거의 없다고 프룬치는 주장한다. 이것은 번역자에게 거의 정신적 갈등을 일으키는 **아비투스**를 마련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번역자는 한편으로는, 의미를 구축할 수 있는 사회적 수행자인 번역자-사제로 인식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히 확립된 규

24) Ibid., 49.

25) Ibid., 50.

칙을 따르고 다른 이들에 의해 요구되는 출판물을 배송할 것으로 예상되는 번역자-천민 사이의 그 어느 곳에 갇혀 있다. 이것을 번역자의 “모순적 **아비투스**”라고 할 수 있다.

프룬치는 이렇게 묻는다. — 번역학을 통해 이제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서 의미와 가치를 창조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 번역자가, 천민 신분에서 돌아서서 번역의 과정을 통해 의미를 구축하기 위해 그러한 문화적 구조와 사회적 규범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을 종종 주저하고 심지어 두려워하는 한 가지 이유가 이것인가? 그리고 그는 “그렇다”라고 답한다. 그는 주장하기를, 우리 자신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를 통틀어 볼 때, 강력한 근원적 사회역사적 제약들은 번역자들이 번역의 사회구성주의적 특성을 충분히 실현하는 것을 방해하였다.²⁶⁾

6. 번역사회학 내에서의 성서 번역자의 핵심 역할

필자가 여기에서 말하는 바는, 인정하건대, 번역학 내의 최근 발전의 대략적인 개관이다. 필자는 1980년대의 “문화적 전환”을 출발점으로 삼아 번역자를 다양한 그리고 때로는 상반된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 얽매인 창조적 사회적 행위자로 예의주시하는 최근의 이론들을 두루 살펴보았다.

이제 필자는 번역학의 넓은 영역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하부 영역인 성서 번역으로 돌아서고자 한다. 이 일을 위해 필자는 여기서 주시한 몇몇 문제점들을 포함하는 번역자 훈련의 요소들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탐구하기 위하여 번역사회학으로부터의 언어와 배운 지식들 일부를 적용할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 목적은 번역의 과정과 출판물에 있어서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요소들이 작동하고 있음을 번역자가 더욱 체계적으로 인식하도록 준비케 하기 위함이다.

첫째, 필자는 번역 훈련 프로그램에 있어서 네 가지 필수적 요소들을 유념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본문, 언어적 요소
- 2) 역사, 문화적 요소
- 3) 인지적 요소
- 4) 사회학적 요소

26) Ibid., 51-52.

필자는 전통적으로 할애했던 관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네 요소들을 나열하였다. 성서 번역의 세계에 있는 우리는 언어적 차원(level)에서 텍스트 자체에 초점을 맞춘 자료정보(data)를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적용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마찬가지로 최근 수십 년간, 훈련 프로그램은 텍스트의 다양한 역사적, 정치적, 지정학적, 사회문화적 맥락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보다 최근에 우리는 증거의 틀, 사회적, 문화적 견해, 정체성, 그리고 인지적 사고를 번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학적 요소에 대한 필자의 마지막(네 번째) 제안은 아마도 매우 최근 몇 년에 이르기까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성서 번역에서의 우리가 번역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몇몇 이론적 예시들을 따라갈 수 있고, 그리고 번역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우리의 훈련 요소들에 더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는 번역의 일차적 행위자, 즉 번역자 자체에 적절한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번역사회학을 위한 볼프의 삼중적 규정을 알차게 차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강조점을 볼프는 **번역 행위자의 사회학**이라 이름 붙였다. 볼프는 번역자를 개인인 동시에 번역을 형성하고 번역에 의해서 형성되는 구체적 사회적 네트워크의 집단 구성원으로 집중 조명하고자 한다. 이제 우리가 성서 번역자를 텍스트의 생산자이자 창조자이면서 또한 수많은 사회적 정황 내에서 의미를 창출하고 형성하는 창조적인 사회적 행위자로 여기고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볼프의 주장을, 필자는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

훈련의 네 번째 요소, 즉 사회학적 요소에서 역점을 언급할 때 우리는 번역이 과정과 출판물로 만나는 다양한 접촉 범위 내에 위치해 있는 번역자를 문화적이고 사회적 정황의 복합적 네트워크의 중심에 바로 세움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필자는 성서 번역자를 그러한 새로운 훈련의 패러다임 내에서 재발견하는 사회학적 접근 안에 포함되는 몇몇 가능한 주제들을, 중요성에 따른 특별한 순서 없이 그리고 생각나는 몇몇 질문과 더불어 제시하고자 한다. 이 제안들의 대부분은 새로운 것이 아닐 것이다. 어쩌면 새로움은 번역자의 사회적 구성주의자의 본성과 사회적 가치와 규범에 미치는 번역출판물의 지속적 효과를 온전히 인식하는 깨달음에서 올 것이다.

과정과 절차:

- 작업 여건은 어떠한가?
- 사회적 규범과 가치들이 작업 흐름과 과정을 향한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누가 절차를 결정하고 확정하는가?
- 이러한 절차들이 규범과 가치를 어떻게 반영하는가?

사회적 행위자로서 번역자의 지위:

- 사회 내에서 한 개인으로서 번역자의 인지된 지위는 무엇인가? 사회 내의 집단적 구성원으로서의 번역팀의 지위는 무엇인가?
- 원하는 지위는 무엇인가?
- 높은 지위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낮은 지위는 어떻게 상승되는가?
- 지위가 번역자의 작업 스타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번역자/번역팀의 지위는 사회 내에서 출판물에 대한 반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기술(공학):

- 사회 내에서 기술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성서 번역의 도구로서 기술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 기술의 사용과 보급에 내재된 권력 문제(power issue)는 무엇인가?

문화 변동의 근원으로서의 번역 출판물:

- 태도, 윤리, 언어 형성에 있어서 번역 출판물로서의 성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 역으로 어떻게 종교적 가치와 규범이 번역의 생산을 구체화 시키는가?

연령:

- 젊은이를 향한 나이 든 세대의 태도는 어떠한가? 나이 든 세대를 향한 젊은 세대의 태도는 어떠한가?
- 이러한 태도가 번역의 실제 작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권력/힘:

- 자금 조성에 있어서 작용하는 권력 문제와 그것에 결부된 조건과 기대는 무엇인가?

- 지역 교회와 번역출판물에 대한 지역 교회의 기대 수용에 미치는 힘은 무엇인가?

- 과정으로서의 번역은 “내부” 행위자(예, 번역자, 감독자, 최종 사용자)와 “외부” 행위자(예, 자금 출처, 후원자, 의뢰인) 간의 힘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는가?

번역팀 내의 사회적 역할:

- 팀원 각각에게 확정된 역할은 분명한가? 아니면 암시적인가?
- 누가 먼저 말하는가? 누가 논의를 끝내는가? 누가 결정을 인준하는가? 누가 방안을 거부하는가?
- 번역 과정의 최대 효율성을 이루어내기 위해 이러한 역할을 바꾸는 것이 어려운가? 아니면 쉬운가?

성(Gender):

- 남성에 대한 여성의 태도는 어떠한가? 여성에 대한 남성의 태도는 어떠한가?
- 이러한 태도가 번역의 실제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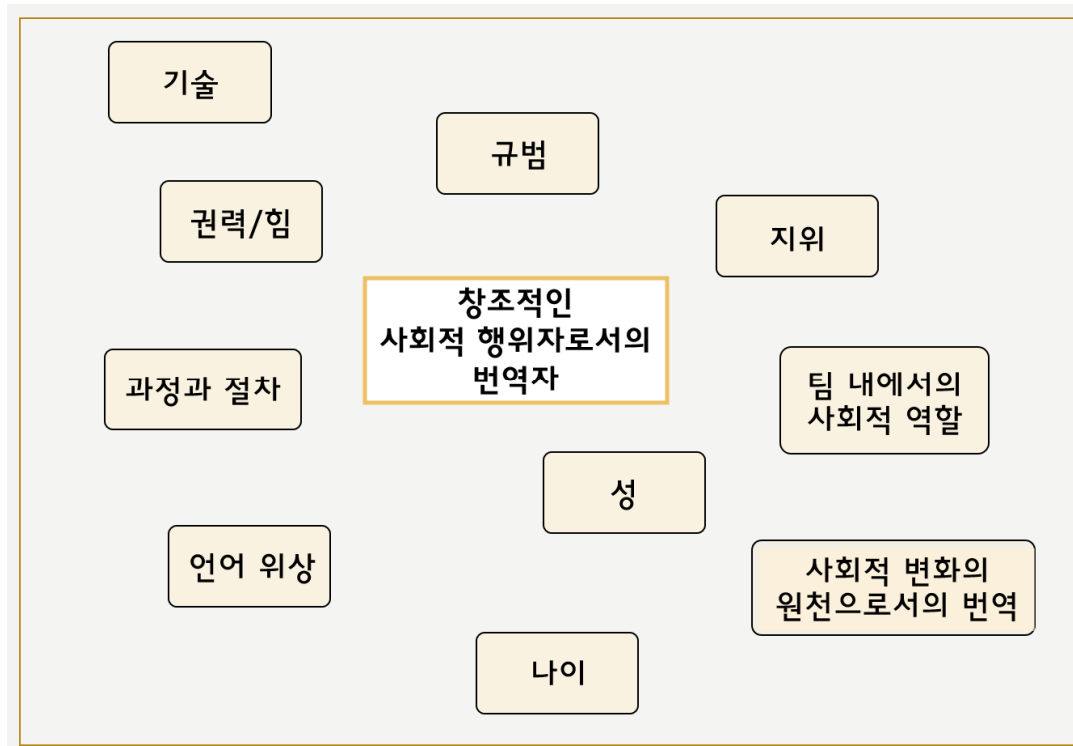
규범(Norm):

- 번역 작업에 있어서 번역자/팀의 용인된 행동은 무엇인가? 이러한 규범을 누가 결정하는가?
- 이러한 규범이 준행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가?
- 더 나은 효율성을 이루어야 하거나 지위를 높이기 위해 이러한 규범이 바뀌어야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언어 위상(Langue Prestige):

- 언어 위상의 인지된 수준은 어떠한가? 위상의 실제 수준은 어떠한가?
- 위상의 지금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아니면 쉬운가?
- 언어의 위상이 번역자의 창조적 작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저런 사회문화적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번역자를 바라보는 것은 한편으로는 벽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쾌하고 신나다(<그림 4>).



<그림 4> 번역자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사회문화적 요소들

7. 결론적 생각과 질문

필자의 마지막 생각은 우리 자신과 번역자가 번역에 있어서 우리의 작업을 규제하고 제약하는 이러한 문화적 구조와 사회적 관행을 더욱더 의식하게끔 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채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더 많은 질문이다. 이 생각은 사실상 교수법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한 주제에 대한 강의식 전달은 아마도 가장 자연스럽게도 효율적인 방식의 교수법은 아니다. 필자의 관심은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알아봄으로써 보다 학습자 중심적이고, 필요에 기반을 둔(needs-based) 훈련의 접근 방법을 재정의하는 데 있다. 소그룹 토의는 그것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솔직하게, 또한 실제적이고 유용하게 행해지는 한 종종 도움이 된다. 역할 놀이(role-playing) 또한 그러한 사회학적 주제와 관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도전은 시나리오를 실제적이고, “힐링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번역 작업에 닥치는 문화적, 사회적 네트워크의 복잡성을 번역자가 더 인식하게끔 하는 것, 그것이 그러한 확대된 훈련의 목표이다. 그러므로 번

역물이 겨냥하는 다양한 사용자와 수문장들(gatekeepers), 즉 번역의 다양한 청취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유용하듯이, 번역 과정에서 다른 행위자들의 말을 귀담아듣고 관심을 끄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최근의 교수법 이론은 더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키고, 더 적은 답을 줌으로써 학습자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어쩌면 다음은 성서 번역자들의 훈련에 있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될 것이다: 번역 작업에 관한 호기심과 “이러면 어떠할까?”(what-ifs) 하는 생각과 쾌활한 사고, 그리고 사회학적 영역에 건설적이라고 생각될 때 수반되는 모든 것을 고무시키는 것.

끝으로, 번역사회학의 패러다임 내에서 성서 번역자들을 훈련시키고 재정립시키는 가장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번역 작업에 있어서 그들의 역할이야말로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행위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게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점이라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번역학이 분명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듯이 그들은 핵심적이다. 성서 번역에 있는 우리가 뒤쳐져서는 안 된다. 성서 번역자들을 그들에서 데리고 나와서 그 어떤 정신적 갈등을 일으키는 **아비투스**일지라도 거기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²⁷⁾

<주제어> (Keywords)

번역사회학, 창조적 행위자로서의 번역자, 번역에서의 사회적, 문화적 요소.

sociology of translation, translator as creative agent, social and cultural factors in translation.

(투고 일자: 2017년 7월 28일, 심사 일자: 2017년 9월 4일, 게재 확정 일자: 2017년 9월 25일)

27) 이 글은 미국 텍사스의 달라스에서 열렸던 “Bible Translation 2015” 학회 때 발표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References)

- Bassnett, Susan and Lefevere, André, eds., *Translation, History, and Culture*, London: Pinter, 1990.
- Bourdieu, Pierre, *The Logic of Practice*, Palo Alto: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2.
- Chesterman, Andrew,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or Studies”, *Hermes—Journal of Language and Communication Studies* 42 (2009), 16-18.
- Even-Zohar, Itamar, “Polysystem Theory”, *Poetics Today* 11 (1990), 9-26.
- Gertz, Cliffor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Selected Essays*, Hammersmith: Fontana, 1993.
- Hermans, Theo, “Translation as Institution”, M. Snell-Hornby, Z. Jettmarová, and K. Kaindl, eds., *Translation a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elected Papers from the EST Congress Prague 1995*, Amsterdam: Benjamins, 1996, 3-20.
- Hermans, Theo, “Norms and Determination of Translation: A Theoretical Framework”, Roman Álvarez and C.-Á. Vidal, eds., *Translation, Power, Subvers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1996, 25-51.
- Nord, Christiane, *Text Analysis in Translation: Theory, Methodology, and Didactic Application of a Model for Translation-Oriented Text Analysis*, Amsterdam: Rodopi, 1991.
- Prunč, Erich, “Priests, Princes and Pariahs: Constructing the Professional Field of Translation”, Michaela Wolf and Alexandra Fukari, eds., *Constructing a Sociology of Translation*, Amsterdam: Benjamins, 2007, 39-56.
- Pym, Anthony, “On the Social and the Cultural in Translation Studies”, Anthony Pym, Miriam Shlesinger, and Zuzana Jettmarová, eds., *Sociocultural Aspects of Translating*, Amsterdam: Benjamins, 2006, 1-25.
- Risku, Hanna, “Situatedness in Translation Studies”, *Cognitive Systems Research* 3 (2002), 532-533.
- Simeoni, Daniel, “Translation and Society: The Emergence of a Conceptual Relationship”, P. St.-Pierre and P. C. Kar, eds., *In Translation. Reflections, Refractions, Transformations*, Amsterdam: Benjamins, 2007, 13-26.
- Snell-Hornby, Mary, *The Turns of Translation Studies: New Paradigms or Shifting Viewpoints*, Amsterdam: Benjamins, 2006.
- Toury, Gideon, “A Handful of Paragraphs on ‘Translation’ and ‘Norms’”, Christina Schäffner, ed., *Translation and Norms*,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1990, 9-32.
- Tymoczko, Maria and Gentzler, Edwin, eds., *Translation and Power*,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2002.

Venuti, Lawrence,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1995.

Wilt, Timothy, ed., *Bible Translation: Frames of Reference*, Manchester: St. Jerome, 2003.

Wolf, Michaela, "Introduction: The Emergence of a Sociology of Translation", Michaela Wolf and Alexandra Fukari, eds., *Constructing a Sociology of Translation*, Amsterdam: Benjamins, 2007, 1-36.

<초록>

번역사회학과 번역자의 핵심적 역할

번역학자들은 이 분야에서 번역사회학의 출현으로 이어지는 명확한 “사회적” 전환을 최근에 인지하였다. 번역사회학은, 사회적, 문화적 차원의 환경 안에 위치하여, 복합적 역할을 감당하고 의미를 절충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번역자의 마음/정신(mind)에서 번역이 일어난다는 점을 인식한다. 번역사회학은 그 초점을 텍스트에서부터 번역자들, 그들의 역할, 사회적 네트워크,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지속적 영향으로 전환시킨다. 본 연구 논문에서 필자는 구체적으로 번역사회학의 출현에 초점을 맞추어 번역학에서의 몇몇 최근의 논의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연구 논문의 목적은 성서 번역자가 속해 있고, 그 안에서 번역이 수행되는 경쟁적 사회적 네트워크들을 어떻게 재확정할 수 있을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필자는 번역사회학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회적으로 건설된 그리고 건설적인 행위자로서, 동시에 텍스트를 생산하고,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번역자의 핵심적 역할을 더 잘 알게 된다고 주장한다.